

지니의 한국 사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이주민’

나의 한강

아! 팔 아파. 어깨부터 팔, 손목까지 똥똥하게 뭉치고 결린다. 코로나 이후로 운동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근육이 아파오는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이게 다 한강 때문이다. 서울을 더욱 다이내믹하게 만드는 한강, 낮과 밤의 풍경이 너무 다르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두 풍경이 모두 아름다운 한강. 서울을 아니 한국을 대표하는 한강, 바로 이게 다 한강 때문이다.

나에게 한강은 마치 오랜 고향 친구 같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어쩌다 한번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반갑기만 한, 늘 같은 곳에 있어 주는 그런 듄직한 친구 말이다. 삭막하고 팍팍한 서울살이도, 지치고 고단한 일상도 한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근심이 가벼워지고 긴장했던 마음도 무장해제된다. 시민들의 발자국, 숨결이 배어있는 공간, 시시때때로, 사시사철 변하는 아름다운 한강은 그야말로 서울의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답고 특별한 곳이다 보니 미국에 살 때도 서울을 생각하면 언제나 한강이 내 마음 한 구석에 있었다. 그래서 서울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은 물론이며 미국 교포 친구들에게도 자신 있게 한강을 추천한다. 한강이 잘 보이는 카페나 식당에 가는 것도 좋지만 강가로 나가 산책을 하거나 유람선을 타며 한강의 다리들을 구경하는 것도 꽤나 즐겁기 때문이다.

한강은 어렸을 때도 나에게 꽤나 친숙한 곳이었

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었어 더욱 그랬던 것 같다. 나이가 어렸을 때도 무심하게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어느새 고요해지는 것만 같았다.

다시 돌아온 서울,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집에서 한강이 보인다. 부엌 창문 넘어 한강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매일 하는 하나의 의식 같은 것이어서 그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위안을 받곤 한다. 특히 석양을 품은 붉은 한강은 너무 아름다워 나의 시야뿐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는다. 이렇듯 한강은 도시 생활로 메말라 가는 감성을 흔들어 깨워주고 풍요롭게 채워 준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바로 그 한강 위에 있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나는 카약을 타고 한강 물을 가로지르며 다리와 다리 사이를 유유히 항해했다. 한강 한가운데서 석양을 바라보며 비릿한 민물냄새,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시원한 맥주까지 한 모금하니 내가 술을 마시는 건지 하늘을 마시는 건지 한강물을 마시는 건지 한강과 마치 혼연 일체가 된 것만 같은 신기한 경험을 했다. 금방 해가 넘어가고 다리 위의 불빛들이 까만 밤 한강 물 위로 번지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밀려왔다.

몸치이긴 하지만 물을 좋아해 유일하게 좋아하는 운동이 수영인 나에게 카약은 또 다른 취미의 가능성을 안겨 주었다. 너무 신이 나서 지나치게

열심히 패들을 젓느라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지만 물살을 가르며 쪽쪽 나아가던 그 짜릿함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오늘도 이렇게 내가 한강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

고맙다. 나의 한강.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이주민’은 ‘재미교포1.5세 이주민’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REDPOINT
REALTY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귀하의 집을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독점*오렌지

\$1,100,000

오렌카운티 전체가 보이는
숨막히는 전망을 가진 집
방5 화3 넓은대지 10000sqft
무조건 오퍼 쓰셔야 하는집
(시세보다 싸게 나왔습니다-타주 이주)

*독점*부에나파크

\$549,900

단층집, 대지 6816
방 4 화 2 1407sqft
포텐셜 너무 많은 매물
(리모델후 시세가
65만 이상 되는 매물입니다)

*독점*어바인

\$819,800

타운홈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노스팍스퀘어 모델 하우스 같은 다운홈
방3 화3 렌탈 투자용으로 너무 좋은
수영장 부가 있는 백맨하이츠
도보거리 low-HOA, No-Mello Roos

*독점*플러튼

\$485,000

2016에 지은 아주 넓고 탁트인
단독주택 이층집 2500 SQFt
방 4화 4 high ceiling, 시원한 거실
새부엌, 새카펫, 새페인트,최고의 학교
Move in/ Turn key, CSUF
*only for Veteran

플러튼

\$499,000

대지 8200 단층집
방2 화1
리모델링 후 시세 65만 되는
가능성 풍부한 매물

플러튼 타운홈

\$490,000

방2+1den 화2
초중고 최고의 학교
앰버우드단지

플러튼

\$859,000

플러튼의 베버리힐스
라구나 레이크 근처
방4 화3 2290sqft
대지 8700 전체 마루
부엌 리모델링, turn key home

위티어 콘도

\$525,000

아직 마켓에
안 나온 집
방3 화3
1560sqft 1987년

사무실 Lease

650sqft 부에나파크, 플러튼에서 8분거리
CPA, Accounting, Law office, Notary Public,
Finacial Office 용으로 저렴한 렌트비
밸리뷰 + 로즈크랜즈

코로나로 인해 페이먼트가 힘드신가요?
은행과 협상을 도와드립니다.
모ডি피케이션, 숏세일도 가능합니다

주택,상가,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Leah Ivy Chang

Realtor

DRE Lic: 02086695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Member of NAR, CAR, PWR

LeahchangRealty@gmail.com

949.501.8555

Irvine: 8 Corporate Park #220
Buena Park: 6561 Beach blvd
Los Angeles:3435 Wilshire blvd #1828